

은퇴예정자의 은퇴설계가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심리적 위기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ffects of Retirement Planning on Quality of Life and Satisfaction -with Moderating Effects on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Sense of Crisis-

김선화, 임왕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Sun-Hwa Kim(kp3345@gmail.com), Wang-Kyu Lim(wklim@hoseo.edu)

요약

본 연구는 은퇴를 앞둔 은퇴예정자들의 은퇴설계가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 심리적 위기감의 조절효과 및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보고, 은퇴설계가 국가의 사회적비용 절감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은퇴설계의 사전교육과 은퇴준비에 대한 관심을 정착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은퇴를 앞둔 직장인을 대상으로, 총 350부의 자료를 배포하여 회수된 335명의 표본이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주택소유형태와 학력에 따라 총체적 만족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택소유형태는 임대인 경우, 학력은 높을수록 총체적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만족도에는 휴식으로의 전환이 부(-)의 영향, 출발에 대한 기대가 정(+)의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심리적 위기감의 조절효과는 없고 부정적 인생평가가 독립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지적 정보에는 휴식으로의 전환과 강요된 좌절은 정(+)의 영향을 미치며, 직업 불만족이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삶의 질 개선에는 은퇴설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심리적 위기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은퇴설계 | 총체적만족도 | 삶의 질 개선 | 심리적위기감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middle-aged retirement planning on individual's quality of life and overall satisfaction,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and psychological sense of crisis, and the differences of measured variables i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tirement planning that may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country's social costs is aimed to provide a basis for fixing the interest in advance of retirement planning training and retirement. The subjects are workers who liv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Gyonggi-do. Total sample size is 350, then 335 samples were collected on the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house ownership and education level among demographic variables affects satisfaction of their life. People who do not own a house shows higher satisfaction, and higher education level affects satisfaction positively. Second, satisfaction is affected by transition to rest negatively, on the other hand, it is affected by expect of new beginning positively. Besides, No moderating effect of social and psychological crisis showed that negative life evaluation role to the independent variables. Third, cognitive information is affected by transition to rest and imposed disruption positively. Besides, job dissatisfaction adjusts between them. Fourth, improvement of life quality is not affected by expect of the retirement planning.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t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and psychological sense of crisis.

■ keyword : | Middle-aged Retirement Planning | Overall Satisfaction |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 Social · psychological Sense of Crisis |

접수일자 : 2015년 05월 19일

수정일자 : 2015년 06월 23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6월 23일

교신저자 : 임왕규, e-mail : wklim@hoseo.edu

I. 서론

의·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점차적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100세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은퇴 후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은퇴 후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조기 사망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1]. 즉, 은퇴설계(준비)는 은퇴 이후의 삶을 전망하고 설계하는 것으로 은퇴 후 삶의 복지적 측면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2].

노후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선진 OECD 국가들조차도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문제 특히 공적연금의 재정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각 국가마다 사적인 노후 준비의 확대를 강조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3].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은퇴 후 유용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가 대두되는 시기이다.

은퇴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은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다각적으로 수행되었으나, 기존연구 연구의 대부분은 은퇴 후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직종별 은퇴기대 및 은퇴준비, 사회 심리적 위기감과 같은 다양한 변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기초자료 제공 측면에서는 매우 미비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은퇴예정자의 은퇴설계 유·무 여부가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 심리적 위기감의 조절효과 및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종합적으로 접근해봄으로써, 은퇴예정자의 은퇴설계가 국가의 사회적비용 절감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검증해봄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은퇴설계의 사전교육과 은퇴준비에 대한 관심을 정착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다.

은퇴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직업이며, 안정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획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일의 보람을 느끼고 무언가 바람직한 일을 한다는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한다[4]. 은퇴기는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인생의 결실기이자 완성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퇴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다[5].

과거에는 은퇴기의 경제적인 측면에만 주로 관심을 두었지만[6], 이제는 은퇴 후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건강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며[7], 은퇴 후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는 사람마다 다양하여 은퇴기의 생활을 예측함에 있어 건강은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은퇴설계, 사회 심리적 위기감, 총체적 만족감 정도를 살펴본 후 은퇴 후 총체적 만족도와 유용성 평가에 대한 결정요인을 파악하여 은퇴 후 삶에 대한 설계 및 활동 가능하면서 유용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은퇴설계, 사회 심리적 위기감, 총체적 만족감의 하위요인들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총체적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들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은퇴설계가 총체적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 심리적 위기감은 조절역할을 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은퇴예정자

중년기 정의는 매우 유동적인데, 그 이유는 중년기를 구분하는 확실한 기준이 없고, 과거에 비해 중년층의 사고방식, 라이프스타일, 생물학적 모습이 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는 직장에서 일을 마치는 정년퇴직 이후의 시기를 노년기로 분류하고, 그 이전의 시기를 중년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분류에는 상이한 의견이 존재한다. 변화순[8]은 중년기를 30~60세로, 이희운·박정윤[9]은 40~60세를 중년기로 보았다. 국내에서도 역시 다양하게 중년기를 구분하고 있는데, 정태연·전경숙[10]은 중년기를 40~60세 혹은 65세까지 포함하였다. 한편, 중년기는 중·고령자에 대한 관계 법령 및 조사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는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50~54세를 '준 고령자'로, 55세 이상

을 ‘고령자’로 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중년기의 다양한 개념과 관계 범령을 수용하여, 45세 이상~65세 미만을 중년기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40대 중반부터 퇴직을 하기 시작하면서 중년기의 일자리 변동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 중년기의 경제활동이나 노년기 일자리, 노후생활과의 관계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미만을 중년기로 정하였다.

2. 은퇴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으나, 재취업문제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미처 은퇴예정자들의 은퇴 후 대책과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1].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금융 불안으로 인한 개인 자산관리의 어려움, 생활비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등의 지속적인 증가, 부모를 봉양하는 전통적인 효의식의 약화 등과 같은 문제로 은퇴와 관련된 개인적, 사회적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심리적 안정감이 저하되고 있다. 은퇴는 생활주기 단계 중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진입하는 분기점이며 동시에 역할 전환의 과정이다. 은퇴는 자아 존중감, 사회적지지 등 개인적인 변인과 은퇴 후 소득준비도와 은퇴생활준비도 등 은퇴준비요인 등에 따라 달리 지각될 수 있다. 은퇴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가에 따라, 또 은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에 따라 은퇴 전 근무나 생활에서 은퇴불안감과 생활만족 수준이 달라질 것이고, 이들 요인들이 결국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흔히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들의 대부분은 은퇴를 하게 된다. 은퇴한 사람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평가한 보고[12]도 있지만, 흔히 노년기의 은퇴란 직업상실로 인한 급격한 수입 감소, 신체적 능력 저하 및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 관계의 재설정 이 필요하게 된다. 즉, 은퇴로 인한 수입 감소는 품위 유지나 활발한 사회관계 및 건강 유지나 증진을 위한 비용 지출에서의 제약 등을 초래하고 가족들과의 일상

생활에서 근접 생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갈등 및 만족 수준에서의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노화나 은퇴를 통한 경제적 제약이나 사회적 역할 변화가 초래된 노인이라 하더라도 성공적인 노후를 영위하는 데에는 반드시 건강과 금전 문제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하다. 은퇴 관련 대표적인 경제학적 이론[13]으로는 생애주기소득가설(Life cycle income hypothesis)을 들 수 있다. 생애주기소득가설은 은퇴에만 적용이 되는 이론이라기보다는 개인이나 가계의 소비와 저축 행동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은퇴와 은퇴준비에 대해 경제학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은퇴 이후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해 주는 이론으로써, 이를 통해 경제적 은퇴준비를 강조하기 위한 기본적 논점을 제공해 준다. 즉, 이 이론의 기본개념은 개인이나 가계는 전 생애에 걸쳐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하여 전 생애에 걸쳐 소득 흐름은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인구사회학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소득과 소비 흐름의 차이로 인해 저축 또는 대출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은퇴로 인한 각종 역할의 상실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 또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은퇴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본다[14].

의학의 발달과 함께 위생과 같은 삶의 질적인 면들이 상당히 향상되면서, 지금의 중·고령자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비교적 건강한 심신을 지녔고, 보다 긴 수명을 영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늘어난 기대수명과 줄어든 퇴직 연령을 고려해 본다면, 대부분의 중·고령자들이 일자리 없이 30~40년을 더 살아야 하며, 갈수록 그 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유휴인력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곧 노동시장을 벗어나 소득 증가세를 둔화시켜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경제 위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은퇴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생의 1/4정도에 달하는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은퇴와 그 이후 생활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은퇴예정자들이 퇴직으로 인해 퇴직 이후의 생활에 대한 어떠한 근거 틀

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노년기에 진입 하면서, 은퇴에 따른 부양자 역할 상실 및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를 경험하면서 노년생활에도 적응해야 하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된다[11].

20~30년 이상을 보낸 직업세계는 관료적이고 기능적인 조직유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측면에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언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규정해준다. 반면 은퇴 후 일상생활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구조 및 기업 구조의 맥락을 벗어나 스스로 개인과 가족의 삶을 재편성하고 은퇴 후의 생활에 적응해야 한다. 퇴직을 기점으로 개인에게는 역할과 지위의 변화, 수입의 변화, 사회적 관계의 변화, 환경의 변화 등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3. 은퇴설계

은퇴설계는 미래에 대비하여 생활스타일, 재무상황, 삶의 목표 등을 잘 반영하여 노후자금 마련 위주의 설계를 하는 것이다. 은퇴설계는 크게 노후자금, 간병, 사망보험과 같은 재무적인 준비와 은퇴 후 주거설계, 봉사와 근로활동, 취미생활, 건강과 같은 비재무적인 준비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연금제도의 미비로 노후자금 준비가 취약한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런 특징을 반영한 한국적인 은퇴모델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지금과 같이 단기적이고 위험이 높은 투자를 지속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보장설계로 여러 가지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고령화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기에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에 은퇴설계와 재무 설계를 하여야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은퇴설계가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상황이나 개인적 역할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가치, 신념, 문화 그리고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사회에서 습득했던 지식, 문화, 생활양식을 새로운 사회의 그것과 절충하고 타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를 재검립하여 내면화해 가는 과정으로 정립하였다. 이러한 은퇴설계에 대해, Hornstein · Wapner[15]가 은퇴 전 1개월, 은퇴 후 6~8개월 사이에

있는 2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결과 은퇴에 대한 4가지 적응양식을 제시하였으며, Gee & Baillie[16]가 Hornstein and Wapner[15]의 은퇴기대양식을 휴식으로의 전환, 강요된 분열, 새로운 출발, 일의 기대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은퇴설계의 범주는 그중 새로운 출발과 일의 기대는 퇴직에 대한 기대라는 개념으로 묶어, 다음과 같이 3가지 하위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1 휴식으로의 전환

은퇴를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아닌 인생의 휴식기로 여기며 단계적인 활동축소 또는 일로부터 이탈하여 쉬면서 노화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본다. 이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은퇴는 은퇴 전의 긴장으로 가득 찬 일의 부담에서 벗어나 한가로움 휴식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시기로 받아들인다.

3.2 강요된 좌절

은퇴를 직업역할의 상실로 여기며 은퇴는 외부의 힘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 은퇴는 좌절감 및 상실감을 주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직업의 상실은 정체감의 핵심부분 상실로 받아들이며 은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으로 생각하며 일을 대신할 어떤 것도 없다고 여긴다.

3.3 퇴직에 대한 기대

은퇴를 새로운 생활의 출발점으로 본다. 즉 은퇴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시기이며, 자기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요구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간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여긴다.

4. 사회 심리적 위기감

사회 심리적 위기감이란 자신과 직장관련 요인들로부터 사회 심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느낌이나 상실감, 혹은 직업에 대한 불만족 등을 말한다[17]. 이러한 불만족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강한 상호작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고

같을 느끼게 한다. 김기찬[18]은 사회 심리적 위기감을 3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부정적 인생평가, 상실감, 직업 불만족으로 구분하였다.

4.1 부정적 인생평가

부정적 인생평가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타인에 의해 지거나 평가 받는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되어 지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하게 보여 지는 두려움[19]으로 은퇴자로서 소중하게 여겨왔던 직장에 대한 가치들이 얼마나 실현되었는가? 등의 지난 과거의 시간과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4.2 상실감

상실감[20]은 "한국노인 상실감 척도구성 및 타당도 검증에 관한 연구"에서 노년기의 상실을 건강의 상실, 역할의 상실, 경제적 상실, 관계의 상실과 같이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직장에서의 은퇴 후 사회관계적인 변화에 따라 사회적 활동과 대인관계가 적어져 느끼는 공허함과 소외감을 말한다. 은퇴자로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 왔던 직장생활을 할 수 없거나 혹은 더 이상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공황상태가 실제적, 잠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4.3 직업 불만족

직업불만족[21]은 욕구충족요인 이론론에서 동기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직업 불만족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동기유발요인이라 하였다. 은퇴가 본인의 의지보다는 외부의 강요된 환경요인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여, 은퇴 이후의 삶을 무의미하고 좌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 한다.

5. 총체적 만족감

5.1 삶의 질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은 일반적으로 "생활의 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원래 영어의 "Quality of Life" 를 번역한데서 비롯되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삶의 질 이라는 용어 대신에, 안녕 혹은 심리

적 복지, 주관적 복지, 생활만족, 행복, 긍정적-부정적 감정 등의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하며[22], 한편으로는 주관적 복지나 생활 만족 등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삶의 질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를 구성하고 있는 인자나 또는 측정방법들이 다양해짐은 물론 그에 따른 정책대안의 선택도 달라지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개념화와 그에 따른 구성요소에 대한 추론을 시도하고자 삶의 질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취해 온 접근 방식을 세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삶의 질을 주관적인 차원에 초점을 두어 정의를 내리고 미시적으로 접근한 주관적 접근방법과 객관적 차원까지를 포함하는 주·객관의 통합적 접근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23][24].

둘째, 삶의 질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한 방법과 단일 차원적으로 접근한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차원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은 주로 삶의 질을[25] 양과 질의 이차원으로 해석해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로 고려하거나, Liu Ben-Chiuh[26]와 같이 환경, 정치, 경제, 건강과 교육, 사회 등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삶의 질의 하위영역이나 차원을 다시 구체화 하였다. 이에 반해 단일 차원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은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하위영역을 밝히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고, 더욱이 일련의 다차원적 관점에서 사용되어 온 하위 개념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입증됨으로서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포괄적 개념임을 강조하였다[27].

셋째, 삶의 질을 미시적으로 접근한 방법과 거시적으로 접근한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삶의 질에 대해 미시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주장하는 바는 삶의 질이란 개인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정도이기 때문에 분석 단위가 개인들의 주관적인 인지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28-30]. 이에 반해 삶의 질에 대해 거시적인 접근을 한 연구들은 사회의 비교평가나 사회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될 실용적인 자료수집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사회지표의 개발에 치중하였다. 초기에는 GNP와 같은 단순한 경제적 지표에만 초점을 두다가 196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지표까지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었다[31].

5.2 만족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애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일자리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점차·점진적 은퇴경향으로 밝혀졌다[32]. 우리나라 고령노동자들은 퇴직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노후 적응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인적자원 개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충족되기를 희망하지만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이들의 경제사회적 활동범위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직 은퇴자의 경우 성공적인 노화에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밀접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33][34]. 따라서 은퇴 후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제공에 의해 성공적 노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구직이나 창업, 봉사 및 취미활동 등의 교육을 통해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성공적 노화를 위한 역량개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노인의 사회참여 개념은 노인 소외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참여의 개념은 적극적인 사회활동의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35].

조추용[36]은 사회참여가 개인의 여가활동과 같은 맥락이라고 전제하고 여가활동이 자유와 재미가 포함된 문화적인 것이며 생산적이고 다른 구성원들과의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여가의 반대개념인 경제활동 즉, 근로활동인 일자리 기회 마련은 노인 개개인의 노후 보충적 소득보장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에 대한 가족과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35].

사회참여 방안으로 일자리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은퇴 이후 경제적 자립, 대인관계 유지 및 외로움 극복 등의 개인적 만족감 향상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노인

대한 사회적 부양비용의 감소, 다른 계층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통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37]. 또한 은퇴 후 자원봉사 참여는 노인 개개인과 젊은 세대와의 화합 및 노인의 심리적 고립 해소 등의 긍정적인 경험이 가능해져서[38],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욕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35]. 따라서 역량 개발 측면에서 성공적인 노화영역의 진단을 통한 개인별 요구 역량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인별 필요역량의 맞춤형 교육제공을 통한 성공적 노화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은 기존의 사회복지관 등에서 여가선용 중심으로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향상시켜 Michigan 대학의 대학공동체(University Commons)처럼 은퇴자마을과 대학 간의 연계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대학의 플라토협회(The PLATO Society at UCLA)나 Harvard 대학교의 은퇴학습협회(Harvard Institute for Learning Retirement), 창의적 은퇴 지원을 위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센터처럼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은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공적 노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계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39].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은퇴설계가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인구 사회적 특성으로 직업, 건강, 경제활동, 사회적지지 등으로 분류되었음을 보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중년기 은퇴예정자의 은퇴설계가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은퇴설계 행위로 정하였다.

5.3 인지적 정보

인지적 정보는 현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혹은 사회적 흐름이므로 찬성하는지 여부, 정년 후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 준비에 동의하는지 여부 등을 의미한다. 인지적 정보에 관한 선행연구는 개인의 인지에 따라 환경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간의 발달과 환경속에서의 기능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지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지적 정도가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의 평가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헌연구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

험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인지도의 수준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부정적 또는 긍정적 정보의 제공이 높은 인지도의 경우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친숙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부정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낮은 인지도의 호감도는 증가하지만, 인식과 신뢰도는 감소한다. 반면에 높은 인지도의 경우에는 평가 항목에서의 감소를 가져온다. 긍정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낮은 인지도의 친숙도, 호감도, 품질인식, 신뢰도 모두 증가한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은퇴예정자의 은퇴설계가 삶의 질 개선과 만족도에 대한 영향관계에 사회 심리적 위기감이 미치는 조절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교사의 은퇴 후 재사회화 결정요인’에 관한 김기찬[18] 선행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은퇴기대’ 대신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은퇴설계’로 설정하여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였고, 선행연구의 매개변수인 ‘심리적 위기감’은 본 연구에서 ‘사회 심리적 위기감’이라는 조절변수로 바꾸어 조절 영향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재사회화’ 하나의 변인을 설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개선, 만족도, 인지적 정보와 같은 3개의 하위변인을 가진 ‘총체적 만족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좀 더 큰 범위에서 세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특히 독립변수(은퇴설계)휴식으로의 전환, 강요된 좌절, 퇴직에 대한 기대는 보험업종 종사자들이 재무설계와 자산관리에 대한 인지적 정보나 인지상태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어 총체적 만족감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1. 은퇴 설계는 은퇴자의 총체적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은퇴설계는 은퇴자의 삶의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은퇴설계는 은퇴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은퇴설계는 은퇴자의 인지적 정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회 심리적 위기감이 클수록, 은퇴 설계가 은퇴자의 총체적 만족감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은 크게 나타난다.

가설2-1. 사회 심리적 위기감이 클수록 은퇴설계가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은 크게 나타난다.

가설2-2. 사회 심리적 위기감이 클수록 은퇴설계가 만족도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은 크게 나타난다.

가설2-3. 사회 심리적 위기감이 클수록 은퇴설계가 인지적 정보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은 크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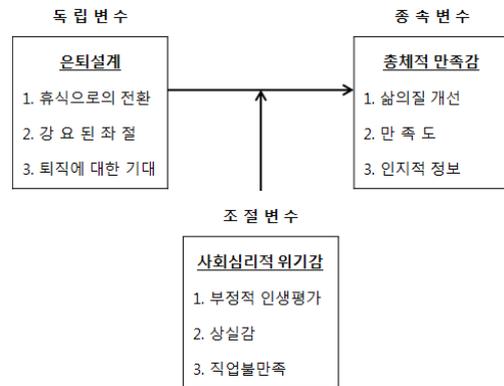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은퇴를 앞둔 40대 전·후반의 보험업종 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업종 종사자자료를 수집하였다. 2014년 6월 15일에서 2014년 9월 15일까지 3개월 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직접 면담의 방식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수집된 350부의 자료 중에서 결측치가 없는 총 33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및 단순회귀분석,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측정변수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위한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α 를 이용하였으며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베리맥스 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총체적 만족감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분석 후 사후검정으로 Scheffe의 다중비교를 시행하였다. 은퇴설계가 총체적 만족감(삶의 질 개선, 만족도, 인지적 정보)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사회 심리적 위기감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3단계에 걸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변수 및 측정도구

은퇴설계는 Gee and Baillie[16]가 Hornstein and Wapner[15]의 은퇴설계 이론과 사전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퇴직태도를 휴식으로의 전환, 강요된 좌절, 퇴직에 대한 기대, 3개 요인으로 분류한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사회 심리적 위기감은 김기찬[18]이 구분한 부정적 인생평가, 상실감, 직업 불만족, 3개 요인으로 구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체적 만족감은 삶의 질 개선, 만족도, 인지적 정보, 3개 요인으로 구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설문 문항은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측정하였다.

4.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에 앞서 측정항목을 선별하고 정교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일반적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이론 변수들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각 항목의 신뢰성(Reliability),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의 개괄적인 방향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측정항목의 사전평가에 사용하고 있다. 요인의 개념 타당성 분석을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직각 회전방식의 (Varimax)의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했으며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론변수의 다 항목 척도간의 신뢰성을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검증하였다.

5. 타당도 검증

5.1 은퇴 설계

먼저, 은퇴설계의 요인분석 결과, ‘퇴직에 대한 기대’에서 2문항, ‘강요된 분열’에서 1문항, ‘휴식으로의 전환’에서 1문항이 타당성을 저해하여, 총 4문항을 제외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MO 측도는 .842로 나타나 변수들의 선정이 좋은 편으로 판단되었으며, Bartlett의 검정 결과도 p값이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총 분산설명력은 62.301%로 나타나, 양호한 설명력을 보였다.

표 1. 은퇴설계 요인분석

구 분	요 인		
	1	2	3
퇴직에 대한 기대 4	.817	.103	.020
퇴직에 대한 기대 8	.789	.073	-.023
퇴직에 대한 기대 7	.781	.067	-.046
퇴직에 대한 기대 3	.761	.102	.121
퇴직에 대한 기대 10	.754	.179	.121
퇴직에 대한 기대 6	.753	.188	.225
퇴직에 대한 기대 9	.745	.143	.076
퇴직에 대한 기대 2	.710	.095	-.054
강요된 분열 4	.187	.869	.044
강요된 분열 5	.261	.803	.019
강요된 분열 3	.047	.738	.029
강요된 분열 2	.072	.669	-.047
휴식으로의 전환 1	-.147	-.038	.806
휴식으로의 전환 2	-.109	-.134	.793
휴식으로의 전환 4	.299	.152	.718
휴식으로의 전환 3	.295	.088	.717
아이겐값	4.994	2.570	2.405
공통변량(%)	31.211	16.060	15.030
누적변량(%)	31.211	47.271	62.301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 = .842
Bartlett $\chi^2=2719.572$, $df=120$ $p=.000$

5.2 사회 심리적 위기감

사회 심리적 위기감을 요인 분석한 결과, ‘부정적 인생평가’에서 2문항, ‘상실감’에서 3문항, ‘직업 불만족’에서 3문항이 타당성을 저해하여, 이 문항들을 제외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MO 측도는 .842로 나타나 변수들의 선정이 좋은 편으로 판단되었으며, Bartlett의 검정 결과도 p값이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총 분산설명력은 74.118%로 나타나,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표 2. 사회심리적 위기감 요인분석

구 분	요 인		
	1	2	3
상실감 6	.896	.202	.094
상실감 5	.879	.162	.149
상실감 4	.732	.182	.285
직업 불만족 6	.134	.882	.130
직업 불만족 5	.196	.880	.159
직업 불만족 4	.432	.596	.363
부정적 인생평가 3	.058	.051	.818
부정적 인생평가 1	.212	.196	.720
부정적 인생평가 2	.356	.408	.672
아이겐값	2.528	2.216	1.926
공통변량(%)	28.094	24.623	21.401
누적변량(%)	28.094	52.716	74.118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 = .842
Bartlett $\chi^2=1453.944$, df=36 p=.000

5.3 총체적 만족감

마지막으로 총체적 만족감을 요인 분석한 결과, ‘만족도’에서 1문항, ‘인지적 정보’에서 1문항이 타당성을 저해하여, 이 문항들을 제외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MO 측도는 .658로 나타나 변수들의 선정이 평범한 편으로 판단되었으며, Bartlett의 검정 결과도 p값이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총 분산설명력은 72.075%로 나타나,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표 3. 총체적 만족감 요인분석

구 분	요 인		
	1	2	3
삶의 질 개선 2	.901	-.009	.173
삶의 질 개선 1	.857	.015	.107
삶의 질 개선 3	.749	.143	.133
만족도 1	-.003	.858	-.076
만족도 3	.114	.832	.090
인지적 정보 2	.072	.048	.862
인지적 정보 3	.248	-.037	.767
아이겐값	2.187	1.453	1.405
공통변량(%)	31.243	20.758	20.073
누적변량(%)	31.243	52.002	72.075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 = .658
Bartlett $\chi^2=586.382$, df=21 p=.000

5.4 신뢰도 분석

앞서 분석된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설문을 통해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조사에 응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다. 신뢰도는 어떤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들 간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알파 계수 0.5~0.6을 기준으로 신뢰도를 검증하며, 엄격하게는 0.7을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이 0.7 이상을 보였으며, 만족도는 0.6 이상, 인지적 정보는 만족도와 삶의 질 개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알파 계수가 0.5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는 양호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4. 신뢰도 검증

변 수	하위항목	문항 수	크론 바하 알파
은퇴설계	휴식으로의 전환	4	.762
	강요된 좌절	4	.793
	퇴직에 대한 기대	8	.905
사회 심리적 위기감	부정적 인생평가	3	.726
	상실감	3	.852
	직업 불만족	3	.820
총체적 만족감	삶의 질 개선	3	.810
	만족도	2	.613
	인지적 정보	2	.554

IV.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성별에 따라서 빈도를 살펴보면, 남자는 75명(22.4%), 여자는 260명(77.6%) 조사되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30대 이하가 90명(26.9%), 40대가 134명(40.0%), 50대가 98명(29.3%), 60대 이상이 13명(3.9%)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252명(75.2%), 미혼이 57명(17.0%), 사별이 12명(3.6%), 이혼이 14명(4.2%)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형태는 자가 222명(66.3%), 임대 113명(33.7%)조사되었으며, 학력은 고졸이 133명(39.7%), 전

문대졸(재학)이 66명(19.7%), 대졸(재학)이 120명(35.8%), 석사과정(석사 졸)이 3명(0.9%), 박사과정(박사 졸)이 5명(1.5%), 기타 8명(2.4%)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한 사람이 55명(16.4%), 건강한 편이 166명(49.6%), 보통이 96명(28.7%), 나쁜 편이 18명(5.4%)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급여생활자가 212명(63.3%), 자영업자가 1명(0.3%), 금융권이 118명(35.2%), 기타가 4명(1.2%)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은 56명(16.7%), 200~350만원 미만이 137명(40.9%), 350~500만원 미만이 83명(24.8%), 500~650만원 미만이 24명(7.2%), 650만원 이상이 35명(10.4%)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월평균 지출 예상액은 200만원 미만이 112명(33.4%), 200~350만원 미만이 169명(50.4%), 350~500만원 미만이 45명(13.4%), 500~650만원 미만이 7명(2.1%), 650만원 이상이 2명(0.6%)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퇴직 예상시기는 3년 이내가 19명(5.7%), 4~5년 이내가 30명(9.0%), 6~7년 이내가 22명(6.6%), 8~10년 이내가 53명(15.8%), 11~15년 이내가 63명(18.8%), 15년 이후가 148명(44.2%)으로 나타났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은퇴설계가 총체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전에,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총체적 만족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들 변수의 총체적 만족감 차이 분석은 t-검정과 ANOVA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는데, 집단이 2개로 구성된 성별, 결혼상태, 주택소유형태, 건강상태, 직업에 따른 차이는 t-검정을, 나머지 특성에 따른 차이는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체적 만족감은 주택소유형태와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자가보다는 임대인 경우 총체적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총체적 만족감이 높게 나타나는 성향을 보였다.

표 5. 개인특성에 따른 총체적 만족감

특성	구분	평균	표본 수	표준 편차	t/F	Scheffe
성별	남자	3.90	75	.50	1.084	-
	여자	3.82	260	.55		
연령	< 30대	3.87	90	.49	1.407	-
	40대	3.88	134	.54		
	50대 ≤	3.77	111	.57		
결혼	배우자 유	3.85	252	.52	0.679	-
	배우자 무	3.81	83	.57		
주택 소유	자가	3.79	222	.57	-2.349*	-
	임대	3.93	113	.45		
학력	ⓐ고졸	3.75	141	.56	4.827**	a<c
	ⓑ전문졸	3.81	66	.54		
	ⓒ대졸 ≤	3.95	128	.48		
건강 상태	건강함	3.84	221	.52	0.043	-
	보통/나쁨	3.84	114	.56		
직업	금융권	3.89	118	.44	1.392	-
	비금융권	3.81	217	.58		
월 평균 소득	< 200만	3.83	56	.42	1.407	-
	200~350만	3.87	137	.53		
	350~500만	3.89	83	.55		
	500만 ≤	3.72	59	.61		
퇴직 후 지출 예상	< 200만	3.80	112	.51	0.877	-
	200~350만	3.88	169	.53		
	350만 ≤	3.79	54	.60		
퇴직 예상 시기	5년 이내	3.76	49	.55	0.432	-
	5~10년	3.86	75	.52		
	10~15년	3.85	63	.46		
	15년 이후	3.85	148	.57		

** $p < .01$, * $p < .05$

3. 은퇴 설계가 총체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3.1 은퇴 설계가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

먼저, 은퇴 설계가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은퇴 설계의 하위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인구통계적 변수 중에 총체적 만족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주택소유 여부와 최종학력을 통제변수로, 그리고 삶의 질 개선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은퇴 설계가 총체적 만족감의 하위요인인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제곱은 .035로 나타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3.5%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값이 2.359($p = .040$)로 나타나 회귀식이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식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은퇴 설계의 각 하위요인의 영향력이 유의미한지 검증한 결과, 퇴직에 대한 기대만이 삶의 질 개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6. 은퇴 설계가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β	
삶의 질 개선	(상수항)	3.366		11.610***
	주택소유 ¹⁾	.160	.104	1.905
	최종학력	.070	.086	1.584
	휴식으로의 전환	.018	.019	.353
	강요된 좌절	.001	.002	.027
	퇴직에 대한 기대	.132	.128	2.211*
		R ² =.035	F=2.359*	

* p<0.05

¹⁾ 주택소유(자가=0, 임대=1)

3.2 은퇴 설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먼저, 은퇴 설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은퇴 설계의 하위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인구통계적 변수 중에 총체적 만족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주택소유 여부와 최종학력을 통제변수로, 그리고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은퇴 설계가 총체적 만족감의 하위요인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제곱은 .100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10.0%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값이 7.310 (p=.000)으로 나타나 회귀식이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식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은퇴 설계의 각 하위요인의 영향력이 유의미한지 검증한 결과, 휴식으로의 전환은 부(-)의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휴식으로의 전환은 퇴직 후 만족도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퇴직 후 휴식으로 전환보다는 계속적으로 또 다른 일을 하거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퇴직자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표 7. 은퇴 설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β	
만족도	(상수항)	3.211		11.325***
	주택소유 ¹⁾	.136	.087	1.657
	최종학력	.106	.129	2.456*
	휴식으로의 전환	-.121	-.133	-2.495*
	강요된 좌절	-.025	-.029	-.521
	퇴직에 대한 기대	.254	.245	4.365***
		R ² =.100	F=7.310***	

*** p<.001, * p<.05

¹⁾ 주택소유(자가=0, 임대=1)

3.3 은퇴 설계가 인지적 정보에 미치는 영향

먼저, 은퇴 설계가 인지적 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은퇴 설계의 하위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인구통계적 변수 중에 총체적 만족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주택소유 여부와 최종학력을 통제변수로, 그리고 인지적 정보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은퇴 설계가 총체적 만족감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정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제곱은 .062로 나타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6.2%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값이 4.345(p=.001)로 나타나 회귀식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은퇴 설계의 각 하위요인의 영향력이 유의미한지 검증한 결과, 휴식으로의 전환과 강요된 좌절이 인지적 정보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8. 은퇴 설계가 인지적 정보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β	
인지적 정보	(상수항)	2.996		8.088***
	주택소유 ¹⁾	.149	.075	1.391
	최종학력	.108	.102	1.901
	휴식으로의 전환	.192	.164	3.027**
	강요된 좌절	.169	.151	2.654**
	퇴직에 대한 기대	.001	.000	.009
		R ² =.062	F=4.345**	

*** p<.001, * p<.05

¹⁾ 주택소유(자가=0, 임대=1)

4. 사회 심리적 위기감의 조절효과

은퇴 설계와 총체적 만족감 간의 사회 심리적 위기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에 걸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해서 1단계에서는 주택소유 여부와 최종학력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으며 은퇴 설계의 하위 요인인 휴식으로의 전환, 강요된 좌절, 퇴직에 대한 기대를 독립변수로,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의 하위요인인 삶의 질 개선, 만족도, 인지적 정보를 추가하였고, 3단계에서는 각 독립변수와 각 조절변수 간의 상호작용 변수들을 추가하여,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조절회귀 분석 결과 공차한계가 0.1이하, 분산팽창계수(VIF)가 10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Aiken and West(*)의 권장에 따른 mean-centering(MC)을 이용하여 원 자료를 변환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각 케이스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값을 각각의 평균값으로 차감한 값들을 적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하고, 은퇴설계(MC휴식으로 전환, MC강요된 좌절, MC퇴직에 대한 기대), 사회 심리적 위기감(MC부정적 인생평가, MC상실감, MC직업 불만족), 상호작용 수준을 독립변

수로 하고 총체적 만족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4.1 은퇴 설계와 삶의 질 개선 사이에서의 조절효과

은퇴 설계와 삶의 질 개선 사이에서 사회 심리적 위기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에 걸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설명력은 8.7%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항은 모두 비유의적으로 나타나 은퇴설계와 삶의 질 개선 간의 사회 심리적 위기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절변수 중 부정적 인생평가

표 9. mean-centering에 의한 조절회귀분석

구분	종속변수	만족도			인지적 정보			삶의질 개선		
		B	β	t	B	β	t	B	β	t
	(상수)	3.746		38.202	3.045		26.444***	3.874		38.487***
인구통계학적변수	주택소유 ¹⁾	.145	.093	1.771	.136	.068	1.407	.149	.097	1.773
	최종학력	.090	.109	2.071*	.105	.099	2.049*	.057	.070	1.266
독립변수	MC휴식	-.103	-.140	-2.605**	.098	.104	2.111*	.016	.022	.399
	MC좌절	-.040	-.054	-.851	-.044	-.046	-.796	-.011	-.016	-.236
	MC퇴직	.213	.288	4.865***	.072	.076	1.406	.124	.170	2.761**
조절변수	MC평가	.104	.140	2.122*	.206	.218	3.601***	.111	.152	2.209*
	MC상실감	-.047	-.063	-.919	.093	.098	1.554	-.061	-.083	-1.163
	MC불만족	.012	.016	.226	.216	.229	3.529***	.017	.023	.309
상호작용	MC휴식xMC평가	-.018	-.029	-.389	-.035	-.043	-.634	-.039	-.062	-.811
	MC좌절xMC평가	.031	.045	.586	.032	.036	.513	.014	.021	.259
	MC퇴직xMC평가	-.020	-.031	-.428	.163	.196	2.931**	-.010	-.016	-.211
	MC휴식xMC상실감	.007	.010	.153	-.041	-.050	-.802	-.058	-.092	-1.294
	MC좌절xMC상실감	-.070	-.113	-1.489	-.103	-.129	-1.848	-.018	-.030	-.378
	MC퇴직xMC상실감	-.076	-.131	-1.800	-.094	-.126	-1.882	-.061	-.106	-1.400
	MC휴식xMC불만족	.065	.097	1.336	.173	.199	3.002**	.077	.115	1.525
	MC좌절xMC불만족	.068	.102	1.211	.040	.047	.611	.060	.092	1.043
	MC퇴직xMC불만족	-.030	-.045	-.610	-.185	-.217	-3.242**	.027	.040	.531
F		3.422***			7.567***			1.788*		
R ²		.155			.289			.087		

*** p<.001, ** p<.01, * p<.05

¹⁾주택소유(자가=0, 임대=1)

휴식=휴식으로의 전환, 좌절=강요된 좌절, 퇴직=퇴직에 대한 기대, 평가=부정적 인생평가, 불만족=직업 불만족

가 유의적으로 나타나 부정적 인생평가는 종속 변수인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독립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은퇴 설계와 만족도 사이에서의 조절효과

은퇴 설계와 만족도 사이에서 사회 심리적 위기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에 걸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설명력은 15.5%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항은 모두 비유의하게 나타나 은퇴설계와 만족도간의 사회 심리적 위기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조절변수 중 부정적 인생평가가 유의하게 나타나 부정적 인생평가는 종속 변수인 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은퇴 설계와 인지적 정보 사이에서의 조절효과

은퇴 설계와 인지적 정보간의 사회 심리적 위기감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에 걸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설명력은 28.9%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항 중 퇴직에 대한 기대와 부정적 인생평가, 퇴직에 대한 기대와 직업 불만족, 휴식으로의 전환과 직업 불만족의 상호작용 항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조절변수인, 부정적 인생평가와 직업불만족이 유의적으로 나타나 모두 유사조절변수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결과와 조절변수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조절효과는 다음 같이 해석된다. 독립변수 퇴직에 대한 기대감의 회귀계수가 (+)이고 상호작용 항인 MC퇴직xMC평가의 부호가 (+)이므로 부정적 인생평가가 커질수록 퇴직에 대한 기대감이 인지적 정보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커진다. 독립변수 휴식으로의 전환의 회귀계수가 (+)이고 상호작용 항인 MC휴식xMC불만족의 부호가 (+)이므로 직업불만족이 커질수록 휴식으로의 전환이 인지적 정보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커진다. 독립변수 퇴직에 대한 기대감의 회귀계수가 (+)이고 상호작용 항인 MC퇴직xMC불만족의 부호가 (-)이므로 직업 불만족이 커질수록 퇴직에 대한 기대감이 인지적 정보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작아진다.

V. 연구결과 및 시사점

앞서 연구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삶의 질 개선에는 퇴직에 대한 기대가 정(+)의 영향을 미치며, 사회 심리적 불안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는 휴식으로의 전환이 부(-)의 영향, 퇴직에 대한 기대가 정(+)의 영향을 미치며, 사회 심리적 불안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정보에는 휴식으로의 전환과 강요된 좌절은 정(+)의 영향을 미치며, 직업불만족과 부정적 인생평가가 조절적인 역할을 하였다.

표 10. 검증결과 요약

독립 변수	종속변수	영향력	조절효과
휴식으로의 전환	삶의 질 개선 퇴직에 대한 기대	-	부정적 인생평가 독립변수 역할
강요된 좌절		-	
퇴직에 대한 기대		정(+)의 영향	
휴식으로의 전환	만족도	부(-)의 영향	부정적 인생평가 독립변수 역할
강요된 좌절		-	
퇴직에 대한 기대		정(+)의 영향	
휴식으로의 전환	인지적 정보	정(+)의 영향	- 직업불만족
강요된 좌절		정(+)의 영향	
퇴직에 대한 기대		-	- 부정적 인생평가 - 직업불만족

1. 연구결과

본 연구는 중년기의 은퇴설계가 총체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사이에서 사회 심리적 위기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은퇴설계는 휴식으로의 전환, 강요된 좌절, 퇴직에 대한 기대로 분류하였고, 총체적 만족감은 만족도, 인지적 정보, 삶의 질 개선으로 분류하였으며, 사회 심리적 위기감은 부정적 인생평가, 상실감, 직업 불만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하위요인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 개선에는 퇴직에 대한 기대가 정(+)의

영향을 미치며, 사회 심리적 위기감의 조절효과는 없고 부정적 인생평가가 독립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총체적 만족도에는 휴식으로의 전환이 부(-)의 영향, 퇴직에 대한 기대가 정(+)의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심리적 위기감의 조절효과는 없고 부정적 인생평가가 독립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지적 정보에는 휴식으로의 전환과 강요된 좌절은 정(+)의 영향을 미치며, 그 사이에서 휴식으로 전환 간에는 직업 불만족이, 퇴직에 대한 기대 간에는 부정적 인생 평가와 직업 불만족이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설계가 총체적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만을 파악한 기존 연구와 달리 사회심리적 위기감의 조절적인 역할을 하위요인별로 검증함으로써, 은퇴설계가 총체적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노후준비 및 은퇴 설계와 관련해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시사점

김진영[40]은 “장년 직장인의 성공적 은퇴설계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논문결과에서는 과거의 장년층이 은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것에 반하여 현재의 장년층은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퇴직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쉽게 찾거나 노동시장에서 재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이들에게 적합한 취업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은퇴를 대비하는 제도적 지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장년 은퇴 예정자의 생계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장년층의 은퇴자 지원 대책은 기업과 노동조합, 민간단체들 스스로의 노력과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배가된다. 정부는 기업 및 민간단체와 기관들에 대한 지원과 일반적 정책을 동시에 수립하여 병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은 퇴직을 앞둔 중년층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전문재무설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비하여 보험사를 비롯하여 각종 금융기관은 무한경쟁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 향상을 위한 재무 설계의 새로운 서비스 수준에 따라 해당 기업의 존재와 퇴출의 사활이 결정되고 있다. 이는 고객이 존재해야 기업과 보험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조절변수로 총체적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는 실적과 성과 위주 경영에서 고액자산가의 환경과 경제의 흐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험사의 판매 인력 재무설계사를 고객 자산상태와 기대수준 이상의 서비스 개선으로 육성하지 못하면 더 나은 영업성과와 생존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은 특히 보험사의 경우 경쟁력 제고를 위해 능력과 소양을 갖춘 전문재무설계사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인지시켜 준다. 이상과 같은 강화 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전문재무설계사는 고객과 시스템의 연결체계를 갖추고 서로 공존하는 파트너십(Partnership)을 가지고 재무를 고객 관점에서 설계하고 향후 경제전반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보험업종에 근무하는 FP(Finance Planner, PB(Private Banking))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비전문가와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조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은퇴를 앞둔 은퇴설계와 은퇴교육에만 초점을 맞추어 설문지가 구성된 관계로 향후 금융권과 비 금융권간의 집단 분석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중에 중년기의 은퇴 설계만을 중점하여 조사하였으므로, 향후 중년층과 장년층, 노년층의 은퇴설계와 은퇴준비도 등의 연구를 3년 단위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총체적 만족감의 하

위변인인 인지적 정보에 대한 척도의 신뢰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남으로써 통계분석 결과에 대한 전체적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인지적 정보를 변수로 사용할 경우 사전에 척도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 문헌

- [1] 김용진, 이기호, *30부터 준비하는 은퇴 후 30년*, 비즈니스북, p.278, 2006.
- [2] 배문조, 전귀연,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제7호, pp.89-102, 2004.
- [3] M. Pearson and J. P. Martin, "Should we extend the role of private social black professionals," *The Gerontologist* Vol.29, No.1, pp.32-37, 2004.
- [4] 이영경, *한국노동시장의 구조와 직업안정제도의 기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5] F. J. loyd, S. N. Haynes, E. R. Doll, D. Winemiller, C. Lemsky, T. M. Burgy, and N. Heilman, "Assessing retirement satisfaction and perceptions of retirement experiences," *Psychology and Aging*, Vol.7, No.4, pp.609-621, 1992.
- [6] M. V. Leonesio, "The economic of retirement: A nontechnical guide," *Social Securith Behavioral Development*, Vol.16, No.2, pp.131-143, 1996. *Elderly*(New York: Academy Press, Inc).
- [7] A. L. Gustman and Steinmeier, *Social security, pensions and retirement behavior within the family*(Wokking Paper No.8772, Cambridge, MA: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2.
- [8] 변화순, 이미정, 김지경, 하현정, *중년기 퇴직남성 부부의 갈등과 적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9] 이희운, 박정운, "기혼중년남성의 가족탄력성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6권, 제2호, pp.169-192, 2011.
- [10] 정태연, 전경숙, "성인의 발달-무엇이 중요한가?:자신의 삶에 대한 중년기 사람들의 평가", *한국심리학회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pp.70-71, 2007.
- [11] 이상엽, "은퇴예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심리적 안녕감과 은퇴 설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5권, 제3호, pp.145-176, 2011.
- [12] P. B. Warr and R. Payne, "Experience of strain and pleasure among British adult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16, pp.1691-1697, 1982.
- [13] A. Ando and F. Modigliani,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3, pp.55-84, 1963.
- [14] R. C. Atchley, "A continuity theory of normal aging," *The Gerontologist*, Vol.29, No.2, pp.183-190, 1989.
- [15] G. A. Hornstein and S. Wapner, "Models of Experiencing and Adapting to Retirement," *Interantional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21, No.4, pp.291-315, 1985.
- [16] S. Gee and J. Baillie, "Happy ever after? An exploration of retirement expectations," *Educational Gerontology*, Vol.25, No.2, pp.109-128, 1999.
- [17] T. Keith Welle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The birth of Vietnam*, 1983.
- [18] 김기찬, *교사의 은퇴후 재사회화 결정 요인*,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34-52, 2013.
- [19] I. M. Marks and M. Gelder, "Different ages of onset in varieties of phobia,"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23, pp.218-221, 1996.
- [20] 정미경, 이규미, "한국노인 상실감 척도 구성 및 타당도 검증에 관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제21권, 제2호, pp.397-416, 2009.

- [21] F. Herzberg, *work and the Nature of Man* Cleveland, Ohio: word Publishing Co. 1966.
- [22] R. W. Rice, "Organization Work and the Overall Quality of Life," *Applied Social Psychology Annual*, Vol.5, pp.155-178, 1984.
- [23] L. A. Stewart and A. C. King,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Quality of Life in Older Populations*, in R. P. Abeles, et al.(ed.), *Aging and Quality of Life*(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94.
- [24] 소진광, "삶의 질 개념과 도시 정책적 함의", *지역사회개발연구*, 제23권, 제1호, 1998.
- [25] Yue Ware, *A Continuation of Tang Gold and Silver Wares*, 1991.
- [26] B. C. Liu,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U.S. Metropolitan Areas:A Statistical Analysis*(New York: Praeger), 1976.
- [27] E. Diener and R. A. Emmons,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7, 1984.
- [28] D. Evans, "Enhancing Quality of Life in the Population at Larg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33, 1994.
- [29] T. R. Parmenter, *Quality of Lif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N. M. Bray (ed.),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in Mental Retardation*(New York: Academic Press), 1994.
- [30] F. M. Andrews,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1986.
- [31] A. Inkelas, "Industrialization, Modernization of the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Vol.34, 1993.
- [32] 최옥금,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에 관한 연구: 생애주된 일자리와 가교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31권, 제1호, pp.15-31, 2011.
- [33] 홍혜영,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34] 주용국, "'노인다움' 노화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모형의 개발", *상담학연구*, 제10권, 제1호, pp.17-42, 2009.
- [35] 변루나, 김영숙, 현택수,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사회참여 지원정책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1권, 제4호, pp.315-344, 2011.
- [36] 조추용, "노인이 가족에게 기대하는 부양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Vol.24, pp.71-99, 2004.
- [37] 광정국, "노인일자리 사업과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이 노인의 생애주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사회 복지지원 학회지*, 제5권, 제1호, pp.233-249, 2010.
- [38] O. Neuteruk, C. H. Price. "Retired women and volunteering: The good, the bed, and the unrecognized," *Journal of Women & Aging*, Vol.23, No.2, pp.99-112, 2011.
- [39] 박상복, *전문직 은퇴자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요구 분석: 역량, 학습 및 사회활동 참여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40] 김진영, *장년직장인의 성공적 은퇴설계를 위한 정책과제: 울산광역시 북구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저 자 소 개

김 선 화(Sun-Hwa Kim)

정희원



· 2014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은퇴 및 재무설계 교육, 고령친화산업 등

임 왕 규(Wang-Kyu Lim)

정회원



▪ 2010년 9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 기술경영, 경영공학, 인사조직, 고령친화산업 등